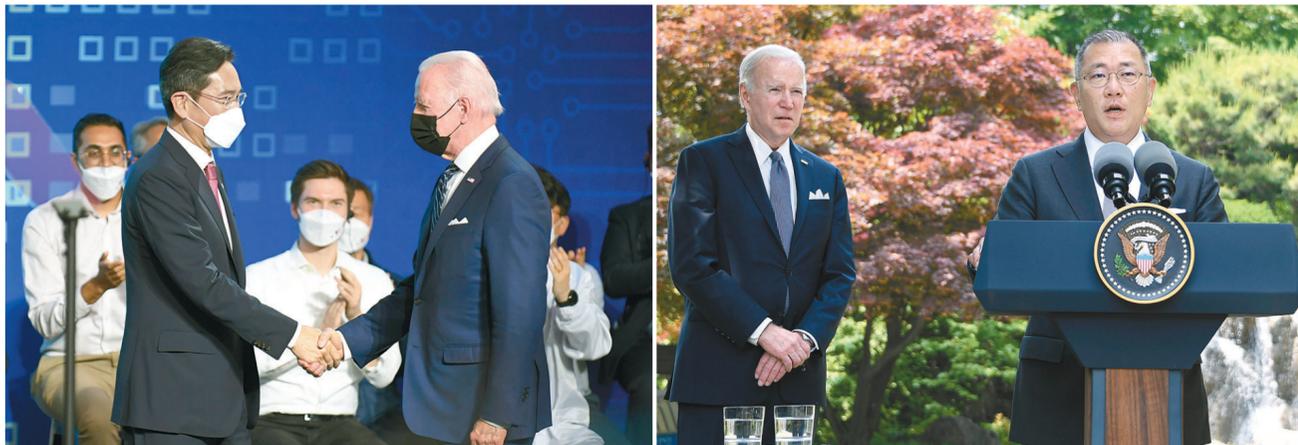


## 현대약품, 벌레물림치료제 '버물리' 새 CF 공개

현대약품은 대표 벌레물림치료제 '버물리'의 새 CF를 공개했다. 새 CF 역시 버물리의 상징인 '둥근 머리'를 강조하는 중독성 있는 CM송과 함께 벌레에 물렸을 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개했다. 버물리 에스액을 비롯해 흡수가 빠른 겔 타입의 둥근머리 버물리겔, 연약한 피부부를 위한 버물리 카드크림, 패치 타입 버물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 '민간 외교' 나선 재계 수장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재계 수장들의 '민간 외교'가 주목받았다. (왼쪽 사진부터)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시찰 후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22일 그린랜드호텔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발언하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 AP 뉴시스

# 첫날 이재용, 마지막날은 정의선...경제협력 강화

이재용, 직접 평택 반도체공장 안내 정의선, 바이든과 면담...투자 발표 바이든, 삼성과 현대차에 감사 표해 환영 만찬에 재계 수장들 대거 참석 양국 간 투자 확대·규제 완화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재계 수장들의 '민간 외교' 역할이 눈길을 끌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재계 수장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핵심이다. 한미 양국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등 첨단 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재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양국 정상 의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한미 '기술동맹 기지'로 떠오른 삼성전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0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대통령을 직접 안내했다. 이 부회장의 소개로 양국 정상은 약 22분간 현재 가동 중인 1라인(P1)과 건설 중인 3라인(P3)을 둘러봤다. 이처

럼 양국 정상이 삼성전자에서 처음 만난 만큼,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기술 동맹 강화를 상징하는 '기술동맹의 기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여러 귀빈들을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에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삼성전자는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반도체를 통해 미국 등 전 세계 각국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노 사이즈 밖에 안 되는 반도체는 인류의 기술적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 기술적 노하우를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1조6400억 원)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 **비즈니스 라운드 이어 환영 만찬까지**  
21일에도 재계 수장들의 분주한 행보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 산수룸에서 열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공동 주재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

드 테이블'에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날 오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 환영 만찬에는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신동빈 회장, 김동관 사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을 비롯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쿠팡의 강만승 대표도 참석했다. 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도 자리했다. 경제계는 이날 만찬에 재계 수장들을 대거 초청한 것을 두고 양국이 국내 주요 기업을 폭넓게 아우르며 경제협력 강화의 리스크 해소를 전망하는 분위기다.

- **美에 100억 달러 신규 투자하는 현대차**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

미를 장식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린랜드호텔에서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2025년까지 미국에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약 6조36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밝힌 추가 투자 분야는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이다. 전날 미국 조지아주에 6조30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를 생산할 전기차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고 밝힌 것 이어, 추가 투자까지 합치면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새로 투자하는 규모는 총 100억 달러(약 12조66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정 회장은 "방한 중 저와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하다. 정말 영광"이라며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10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자랑스러운 기업 시민이 되었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선택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 덕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고 있고 미래 전기 산업에서 미국의 목표가 속도를 내게 됐다"고 화답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오른쪽)과 김영모 한국전통문화대 총장. 사진제공 | 하나금융

## 하나금융, 한국전통문화대와 업무협약 전통문화와 연계한 지역청년 창업 지원

하나금융이 22일 충남 부여 소재 한국전통문화대와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 파워온 챌린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 지원이 주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지역 거점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청년 창업 지원과 창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전국 10개 지역 거점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업 지원, 취·창업 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작, 지역 대학생과 청년 대상 창업 교육·실습 및 후속 지원 등을 진행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 소멸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청년 창업에 육성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계승,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서울관광재단, 다누림 청와대 셔틀 운영 연장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약자를 위한 청와대 관광 무료순환 버스(셔틀버스)의 운영을 6월11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22일까지였으나 청와대 개방기간이 늘어나면서 버스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순환버스로 사용하는 다누림 버스와 미니밴은 휠체어와 유모차도 탑승 가능하도록 개조한 리프트 차량이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 만 65세 이상, 임산부, 만 8세 이하 및 동반 관람객이다. 청와대 셔틀버스는 17일까지 하루 평균 1600명 이상 탑승해 누적이용객 1만2857명을 기록했다.

## 하이원리조트, '하이원 펫클럽' 7월 오픈

하이원리조트는 7월 반려인을 위한 종합 숙박문화시설 '하이원 펫클럽'(사진)을 힐포도 D동에 오픈한다. 반려동물 동반객실(35객실)을 비롯해 반려견 동반 식당 하이하우 클럽 라운지, 놀이터, 샤워실, 반려견 특화 편의점 등을 갖추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운영한다. 오픈을 앞두고 하이원리조트에서 21·22일 이틀간 열린 반려견 동반 트레킹 축제 '맹명트레킹'에서 참가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하이원 펫클럽'을 소개하는 마케팅 활동도 진행했다.

## LG생건 '포켓몬 에디션' 생활용품 출시

LG생활건강이 '포켓몬 에디션' 생활용품(사진)을 선보였다. 유시물, 피지오겔, 닥터그루트, 벨면, 아우라 등 인기 브랜드의 대표 제품과 포켓몬이 만나 소장 가치를 높였다. 특히 여름 시즌을 겨냥한 '피지오겔 선크어', '유시물 여행용 치약치솔 세트', '미니스 여행용 세트'에는 포켓몬 24종 중 1종을 랜덤으로 적용한 '트래블 캔벳지'를 포함해 구매에 특별함을 더했다. 트래블 캔벳지는 여행 가방이나 파우치에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원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 다보스 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줄일 것”

전세계 리더들과 기후변화 대응 논의의 친환경 원료 전환·공급망 ESG 관리 등 '넷제로' 달성 위한 역할과 전략 공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사진)이 22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연차총회에 2년 연속 참가해 글로벌 리더들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제공 | LG화학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연차총회(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전 세계 리더들과 기후 변화 위기 대응 방안을 나누고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에 나선다. LG화학은 22일부터 26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닷새 동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신학철 부회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어젠다 위크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세션에 한국 기

25일에 열리는 '넷제로(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더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법' 세션에서 신 부회장은 넷제로 달성을 위한 LG화학의 역할과 전략을 공유한다. 이 세션은 세계경제포럼 측이 별도로 동명의 보고서를 발간할 정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제다. 신 부회장은 사업장 내 탄소 감축에 그쳤던 기존의 논의에서 나아가 직접적인 제품 생산부터 협력업체와 물류 시스템, 제품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LG화학은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의 전환 ▲모든 제품의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LCA ▲공급망 ESG 관리 등을 통해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LG화학은 오는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신 부회장은 세계 최대 기후 리더 모임인 '기후 리더 연합'에 참여하는 한편 화학/첨단소재 산업 대표 회의, 유럽 연합(EU) 전략 대화, 10여 건의 기업 간 최고경영자회의에서 미래 투자 협력 등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인류의 과제이자 고객과 시장의 기준"이라며 "우리 사업과 연관된 모든 공급망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등 글로벌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LG화학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범 기자 sereno@donga.com